

# 유물에 표현된 전통매듭에 대한 연구

- 온양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 Traditional Knot Represented in the Remains

- Focusing on the Remains of the Folklore Museum of On Yang -

임 상 임\* · 임 영 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박사과정\*\*

Im, Sang Im\* · Im, Yong Ju\*\*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Bioscience Won-Kwang University Pro\*

Departmen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of Bioscience Won-Kwang University\*\*

---

### Abstract

The purpo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d the kind and feature of the knots used in four categories, "living, clothing, ceremony, and decoration", after analysing and examining 42 knot remains of the folklore museum of On yang.

The method were by old books and various kind's related books, history of knots and kind of knots investigated and analyze relics were actual proof investigation of real things and supplementary materials were photos, drawings, and museum's explanation used. The results are as is following ;

First, a knot is twisted by two threads, formed in the process of twisting, become in equal shape, and made in symmetry.

Second, In knot's names, there are sangkang, karakge, ankyongchip, jamjary, kukhwa, bol, byongary, memi, kkondiki, kong, yonbong which are easily seen in nature.

Third, a knot was used in as living things in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as a decoration such as Buddhism goods in Koryo. In the era of Cho sun,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knot's kind and the variety of service, it was the target of restriction as a luxury.

Fouth,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museum's relics, a knot was smaller than the chief object because that is a decoration.

Fifth, there are 8 kinds for living and clothing which are simple knots "doramaetup, karakgemaetup, and sangtchokmaetup".

Sixth, the complex knots such as kukhwamaetup, byongarymaetup, and 3bolkamkae emaeutup are used on pangchang, chokja, nambawi, and chobawi.

Seventh, there are 10 kinds for ceremony, the simple knots are twisted and the complex knots such as kukhwamaetp, maehwamaetup, nabimaetup, and sasaekgupoki are used.

Eighth, there are 14 kinds for decoration, the simple knots such as doraemaetup, kakagemaetup, santchokmaetup, and ankyongchipmaetup and the applied knots such as kukhwamaetup, byongarymaemaetup, changkumaetup, nabimaetup, and seokssima etup are used.

There are 42 knot remains in the folklore museum of On yang. Of them, there are 33 kinds in the present, 17 used. that is because only several knots have been used. Finally, to forget the knot's way, we will set up a plan to keep with it.

**Key words** : maetup, doramaetup, karakgemaetup, sangtchokmaetup, kukhwamaetup

## I. 서론

매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규정지을 수 없으나 고기잡이 그물이나 사냥용 채집용구 등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용구의 존재나,紐의(紐衣)의 존재를 볼 때 매듭이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진 매듭은 점차 장식이 더 하여져 생활용품 뿐만이 아닌 장식품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독창적인 여러 기법이 고안되고 발달되어 다양한 종류의 매듭이 만들어졌으며, 매듭은 남바위, 조바위, 휘항 등과 같은 난모류에 도포곤, 배자, 염낭, 귀주머니와 같은 의류 및 주머니의 종류뿐만이 아닌 떡살, 수저집, 안경집, 담배쌈지를 비롯한 한결이 방장걸이 등 장식과 실용을 겸한 여러 곳에 활용되었으며, 상여와 연을 비롯한 각종 약기의 장식과 의복에 패용(佩用)함으로써 장식적 효과를 더한 각종 노리개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민족말살정책에 의해 우리 전통의 것이 사라지고,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생활방식의 변화와 복식의 변화에 따라 매듭 또한 그 맥을 잃었다. 하지만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전승자와 몇몇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사라져 가는 매듭의 기법이 찾아지고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매듭은 또한 우리민족의 생활예술을 그대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산업화 기계화된 현대에도 물건을 묶는 등의 일에는 반드시 손으로 맺는 일이 필요하고 작업의 마무리에 있어서도 맺는다는 일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맺는다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장식용품으로 발전한 매듭이 현대에 와서 생활용품으로나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으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란 말이 있듯 우리 민족만이 가진 독창적인 문화를 발굴하여 계승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이것이 기술이 아닌 문화수

출의 시대를 헤쳐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며, 민속공예의 한 분야로써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새로운 기법 고안 및 끈목 색상 변화의 시도와 매듭전승자 뿐만이 아닌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매듭은 맺는 끈목이 섬유로 이루어진 까닭에 온도, 습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등과 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어 오랜 기간 보존이 어려울 뿐 아니라 매듭이란 특성상 손으로 엮고, 조이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므로 끈목에 마모가 생기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여러 유물에 비해 그 보존이 용이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여러 조건에 의하여 매듭은 조선시대 초기의 것은 문헌상의 기록이 있지만 매듭의 종류를 식별하기 어려워 제작된 실물을 직접보고 매듭의 종류 및 용도를 파악하고자 조선시대 말기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온양민속박물관 자료를 대상으로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 전통매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대 매듭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한국 전통매듭의 시대별 변천과 매듭의 종류를 살펴보고, 온양민속박물관 유물을 조사하여 매듭이 사용된 42종 86점의 용품을 생활용, 의류용, 의례용, 장식용 등으로 구분한 후, 각 용도에 따른 매듭의 활용과 특징 및 각종매듭의 사용 빈도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여타 연구에 비해 매듭에 대한 연구의 빈약함과 자료부족의 실상을 절감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매듭의 특성상 보관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헌상의 기록과 영상자료의 제작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온양민속박물관 유물 중 매듭이 사용된 유물 42종을 대상으로 고문서와 여러 관련 책자를 통해 매듭의 종류를 고찰하였고, 유물의 분석은 실물을 통한 실증적 고찰과 사진이나 그림, 박물관 도록 등을 보충자료로 활용하였다.

Corresponding author ; Im, Yong Ju  
Tel. (042) 628-2996, H.P 011-675-0493  
E-mail : www.djon@hanmir.com

\* 본 논문은 2000년 12월 2일 동계학술대회 기간 중 포스터 발표된 논문입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매듭의 기원과 변천

매듭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매다'라는 말은 "끈이나 줄 따위의 두 끝을 엮거나 잡아당겨 마디를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고, '매듭'이란 "노, 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sup>1)</sup>. 또는 "명주실을 꼬고 합사(合絲)하여 각색으로 염색해 끈목을 친후, 그 두 가닥 끈목을 늘어 뜨려가며 각종 모양을 맺는 것"<sup>2)</sup>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숙은 "매듭(每緝)이란, 끈을 소재로 하여 그 끝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맺어 죄는 수법의 하나"<sup>3)</sup>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통하여 볼 때 매듭이란 "두 가닥의 끈이나 줄을 이용하여 늘어 뜨려가며 그 끝에 각종 모양을 맺어 조여 놓은 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이영순의 매듭에 대한 연구에서 전통매듭에 대해 "2가닥의 끈목으로 기하학적인 모형을 이루며 맺어지는 전통매듭은 앞과 뒷면이 꼭 같고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도 중심에서 시작하여 그 매듭의 중심 위치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으며 정확한 좌우대칭이다."<sup>4)</sup>라고 있는데 전통이란 문화와 풍속, 제도 따위를 전하여 받아 계승하는 것<sup>5)</sup>이고 전통이란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하여지는 것<sup>6)</sup>을 전통이라 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가닥의 끈목을 이용하여 늘어 뜨려가며 그 끝에 각종 모양을 앞 뒤 면이 꼭 같고 중심에서 시작하여 매듭의 중심에서 끝나며, 좌우 대칭을 이루는 형태"를 전통매듭으로 정의하고, 끈으로부터 시작된 매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과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삼국시대이전 즉 상고 시대의 매듭 대하여 살펴보면 신석기시대 돌도끼나 돌칼 등의 구멍에 끈을 꿰어 사용한 흔적으로 보아 수렵이나 식생활용 도구 등에 매듭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지고 청동기시대 유물인 방주차, 관옥, 곡옥 등에 끈을 꿰어 사용한 흔적으로 청동기시대 또한 끈을 사용하고 매듭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원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는 양산 통도사 승문 토기를 보면 새끼를 꼬아 문양을 넣었는데 이것은 바로

끈을 꼬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고기잡이 그물이나 사냥하는데 쓰인 채집용구 등을 매듭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 매듭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sup>7)</sup> 이와 같이 매듭은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여기에 기능과 미적 감각이 더 하여져 발전되어진 것이다. 즉 실용적 용도에서 발생하여 장식적 용도로 변모되어 졌다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매듭이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된 시기로 매듭의 형성기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끈을 꼬아 실내장식용으로 사용한 흔적이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안악 3호분(AD 375년) 벽화 서쪽결칸 서벽 남자주인공의 정사도, 서쪽결칸 서벽 여자주인공과 시녀도에 방장을 묶은 끈과 술 그리고 장식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의 동쪽회랑에 행렬도가 있는데 이 행렬도의 말 장식을 통해서도 이미 매듭이 생활전반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길림성 집안현에 있는 각저총,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동에 있는 덕흥리 벽화 고총 등에도 묘주로 보이는 인물화에 방장과 그것을 묶은 끈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신라에서 사용되어진 매듭의 흔적으로는 『삼국사기』 복색조를 보면 "신라 상당 대나마와 적위대사의 관에 땀은 갓끈을 달았다."<sup>8)</sup>고 했다. 이것은 당시 매듭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었음을 말하여주는 것이며 "말의 가슴걸이에 땀은 줄과 자색 줄 금, 은실을 섞어서 땀은 것을 금한다." "말 가슴걸이는 힘줄 혹은 삼으로 끈 끈을 쓴다."<sup>9)</sup>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의 귀족들이 매듭 끈을 이용해 말 꾸미는 것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으로 신라에서 갓끈, 말의 장식 등 매듭이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었고, 장식적인 면으로 이행되어 가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삼국 중 국가 형성이 가장 늦은 신라에서 생활전반에 걸쳐 매듭이 널리 사용된 점으로 보아 기록만 찾을 수 없을 뿐 백제에서도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되어진다.

고려시대 매듭 사용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고려도경』 제 9권 곡개(曲蓋: 자루가 굽은 일산)와 청개(靑蓋)에 대해, 노란색 실로 잔끈과 유소(流蘇)를 달았다<sup>10)</sup>하고, 제 10권 화개(華蓋)와 황번(黃幡)에 관한 설명에서 모두 유소(流蘇)사용의 흔적을

찾을 수 있고, 구장(毬杖: 격구 할 때 쓰는 공채)에 대해 채수(采綬)를 꿰어 늘인다<sup>11)</sup>고 했다. 제 13권 패검(佩劍)에 색끈 고리와 채여의 금수맺음에 대한 설명이 있다.<sup>12)</sup> 그리고 제 15권 왕마(王馬)에 마갑을 번영(繁纒)으로 장식했다.<sup>13)</sup>고 했으며, 제 20권 귀부(貴婦)조에 채색 끈 사용에<sup>14)</sup>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고려시대 불화에 나타나 있는 매듭을 통해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초기의 매듭과 끈목, 염색 등에 대하여 짐작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로 고려시대 매듭은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 매듭의 종류와 용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장식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실생활 전반에 널리 애용되었다. 그러나 매듭이 사용된 유물은 조선초기의 것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말기의 것으로 그 면모를 살펴 볼 수 있다. 조선초기 매듭의 흔적으로는 『세종실록』 4권 가례도감에 연과 일산(日傘)의 도해에 술 장식의 그림이 있고 국악기에 국화매듭과 생쪽매듭을 맺은 모습을 볼 수 있다.<sup>15)</sup> 『세종실록』은 조선시대 초기의 기록인 만큼 실물은 남아 있지 않지만 고려시대에도 국화매듭, 생쪽매듭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성종실록』에 의하면 수를 놓거나 매듭을 지어 사치했다.<sup>16)</sup>는 기록이 있어 당시 매듭이 사치스런 장식품이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조선 중기의 매듭은 김홍도의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의 말 장식이나, 신윤복의 미인도에 노리개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조선시대 매듭종류의 발달과 용도의 다양함 그리고 미의식(美意識)의 발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제2권 진사전(眞絲廬)에 끈 같은 물건을 팔고, 분전(粉廬)에서도 색실 등을 판다.<sup>17)</sup>는 기록이 있고, 『대전회통』 공전(工典) 경공장(京工匠) 본조(本曹)에 다회장(多繪匠) 2인 매듭장(每緝匠) 2인 상의원(尙衣院)에 매듭장(每緝匠) 4인 합사장(合絲匠) 10인 청염장(靑染匠) 10인 홍염장(紅染匠) 10인 연사장(練絲匠) 75인을 두었다.<sup>18)</sup>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고, 『경국대전』공전(工典) 공장(工匠) 경공장(京工匠)중 다회장(多繪匠)을 본조(本曹)에 2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 매듭장(每緝匠)을 공조(工曹)에 2인 상의원(尙衣院)에 4인, 합사장(合絲匠)은 상의원(尙衣院)에 10인을 두고, 청염장(靑

染匠)을 상의원(尙衣院)에 10인 연사장(練絲匠)은 75인을 두었다 하고 또한 제용감(濟用監)에 홍염장(紅染匠) 10인 청염장(靑染匠) 20인을 두고, 전설사(典設司)에 다회장(多繪匠) 6인을 두었다<sup>19)</sup>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중 다회장(多繪匠)이란 따를 치는 장인을 말하며, 다회는 실로 짜는 끈목을 말하는데, 끈을 만드는 것을 “다회친다”라고 했다. 다회의 공정은 생사, 합사, 연사, 염사의 공정을 거쳐 이루어지므로<sup>20)</sup> 매듭을 맺기 위한 재료나 염색 기술들이 이미 상당히 발전되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화되었을 만큼 수요 또한 많았던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매듭이 조선 후기에 들어서부터 점차 일반 평민에게도 많이 쓰이게 되었고 따라서 많은 종류의 장식용 매듭이 생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말기 이후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전통문화말살정책으로 많은 문화 훼손과 근대화의 물결과 함께 서구 문물이 급격히 밀려옴으로써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매듭 또한 그 용도가 차츰 줄어들면서 명맥만이 겨우 유지되어지고 있다.

## 2. 매듭의 종류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매듭의 종류로는 30여 가지가 있으며, 각기 다른 형태의 매듭들은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매듭은 두 가닥의 실로 엮고 조이는 과정에서 매듭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엮고 난 후 앞뒤가 동일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칭을 이루고 보통 주체를 살리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한다. 매듭을 맺으려면 일정한 길이의 끈목을 반으로 접어 중심을 잡고 두 가닥의 끈을 순서대로 엮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조여주어야 한다. 어떻게 조여 주느냐에 따라 매듭의 아름다움이 결정되므로 매듭 맺기에 있어 조이는 과정이 중요하다. 매듭으로 맺어진 형태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명칭이 자연에서 얻은 것, 늘 보고 사용하는 온갖 물건, 꽃, 곤충에서 따왔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생강, 나비, 잠자리, 국화, 벌, 병아리, 끈디기, 매미, 콩, 연봉 등으로 매듭이 우리생활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전해 내려오는 매듭의 종류는 의도래매듭, 도래매듭, 귀도래매듭, 연봉매듭, 매화매듭, 잠자리매듭, 암나비매듭, 수나비매듭, 안경매듭, 동심결매듭, 생쪽매듭, 파리매듭, 장구매듭, 벌매듭, 가지방석매듭, 십일고매듭, 석씨매듭, 난간매듭, 국화매듭, 세벌감개매듭, 네벌감개매듭, 다섯벌감개매듭, 사색거북판매듭, 가재눈매듭, 매미매듭, 끈디기매듭, 날개매듭, 전복술매듭, 망사매듭, 생동심결매듭, 사동심결매듭, 가락지매듭 등 33종류이며, 매듭은 지방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도 하다. <표 1 참고>

### 3. 매듭에 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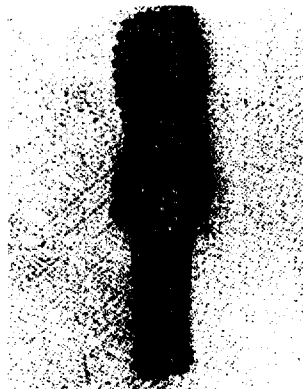
매듭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영순의 『매듭에 대한 연구』, 성낙륜의 『한국불화에 나타난 매듭의 고찰』, 김은영의 『우리 나라 매듭의 사적고찰』 등이 있으며, 이영순의 『매듭에 대한연구』에서는 매듭의 역사적 고찰과 매듭의 기법을 중심으로 작업용 매듭과 장식용 매듭으로 구분하여 작업용 매듭에서 끝 또는 혹을 만드는 매듭, 2개의 끈목을 잇는 방법, 길이를 단축시키기 위한 매듭, 고리를 만들기

<표 1> 기본형매듭의 종류와 지역별 명칭<sup>21)</sup>

지역 순서	궁 중	서울지방	대구지방	남원지방
1		외벌도래매듭	외도래매듭	
2	도래매듭	도래매듭(그림2)	도래매듭	
3	외귀매듭	납작이매듭	귀도래매듭(그림3)	
4	단추매듭	연봉매듭(그림1)	단추매듭	
5	매화매듭			
6	잠자리매듭(그림11)	잠자리매듭	온정자매듭	
7	나비매듭	나비매듭	암나비매듭(그림7)	
8			수나비매듭(그림8)	
9	안경매듭(그림5)		안경매듭	
10		동심결매듭	동결매듭	
11	생쪽매듭	생쪽매듭(그림4)	정자매듭	정자매듭
12		파리매듭		
13	이귀매듭	장구매듭	삼정자매듭	삼정자매듭
14	벌매듭	벌매듭		
15	가지방석매듭(그림9)			
16		십일고매듭		십일고매듭
17		석씨매듭		
18	난간매듭	난간매듭		
19	국화매듭(그림6)	두벌감개매듭	국화매듭	국화매듭
20	소차매듭	세벌감개매듭	세벌강정매듭	방석매듭
21	대차매듭	네벌감개매듭	네벌강정매듭	
22		다섯벌감개매듭	다섯벌강정매듭	
23		사색판매듭	거북매듭	
24				가재눈매듭
25			매미매듭(그림10)	계눈매듭
26				끈디기매듭 (그림12)
27				날개매듭
28		전복술매듭		
29		망사매듭		
30	생(生) 동심결매듭			
31	사(死) 동심결매듭			
32				
33		가락지	가락지	가락지



〈그림 1〉 연봉매듭



〈그림 2〉 도래매듭



〈그림 3〉 귀도래매듭



〈그림 4〉 생쪽매듭



〈그림 5〉 안경매듭



〈그림 6〉 국화매듭



〈그림 7〉 암나비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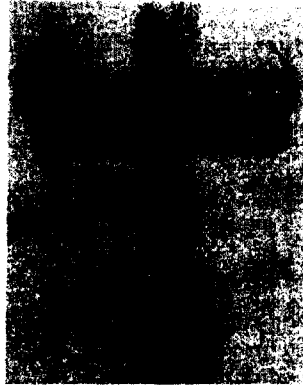
〈그림 8〉 숫나비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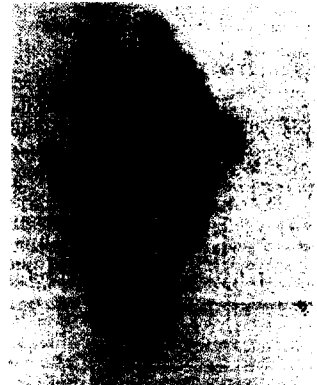
〈그림 9〉 가지방석매듭



〈그림 10〉 매미매듭



〈그림 11〉 잠자리매듭



〈그림 12〉 끈디기매듭

위한 매듭, 물건을 묶거나 걸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장식용 매듭은 전승매듭만을 고찰하였으며, 매듭을 맺는데 필요한 끈목에 관하여 원다회, 각다회, 광다회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영순의 논문에서는 전통매듭법의 보존과 전달을 위하여 도해를 삽입하였고, 명칭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낙륜의 『한국불화에 나타난 매듭의 고찰』에서는 한국불화의 기원 및 종류, 시대적 변천 그리고 한국 매듭의 형성과 종류, 한국불화에 나타난 매듭의 형태, 용도, 색채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통매듭이라기보다 묶는다는 의미의 것을 다루고 있으며, 불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되었다. 김은영의 『우리나라 매듭의 사적고찰』에서는 논문 제목에서와 같이 매듭의 역사를 중심으로 매듭의 시대적 특성과 조선시대 매듭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우리나라 매듭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여 체계화 하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실물을 직접보고 매듭의 종류 및 용도를 파악하고자 온양민속박물관 자료를 대상으로 매듭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밝혀 각 용도에 따른 매듭의 활용과 특징 및 각종매듭의 사용빈도를 분석 고찰하고자 한다.

#### 4.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매듭의 시기 및 특성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매듭유물은 대부분이 조선시대 후기의 것으로 유물의 명칭은 일반화된 용어

를 사용하였으며 재질, 문양, 제작기법 가운데 특징적인 한가지를 수식어로 병행하여 표기하였고, 조선시대 초기의 것은 문헌상의 기록이 있지만 매듭의 상세한 관찰을 통한 연구를 위하여 조선시대후기 유물의 종류가 많이 남아있는 온양민속박물관을 선택하였으며,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매듭유물은 민속박물관이란 특성상 그 시대의 여건과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되어진 유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통매듭의 종류 및 용도 그리고 각 용도에 따른 매듭의 활용 범위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I. 유물에 나타난 매듭의 활용

우리의 매듭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장식성이 더해졌으며 사용 계층이 확산되는 등 실생활 전반에 널리 애용되었는데 이러한 매듭에 대하여 온양민속박물관 내 매듭이 사용된 유물을 중심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매듭의 활용 및 특징을 분석해 본다.

#### 1. 생활용품에 활용된 매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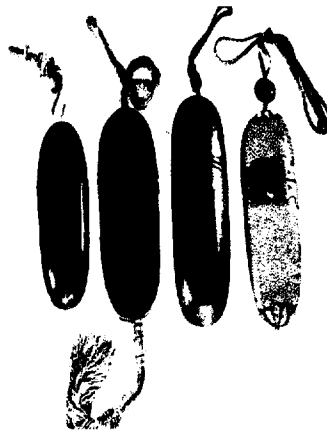
온양민속 박물관 내에 있는 생활용품으로는 떡살, 수저집, 안경집, 방장걸이, 발걸이, 담배쌈지, 부시쌈지, 표주박, 부채, 족자걸이, 침통 저울, 패

〈표 2〉 유물에 나타난 매듭의 활용범위

유물 \ 용도	생활용품	의류용품	의례용품	장식품
1	떡살(3점)	남바위(2점)	상여(1점) (꼭두각시놀이용)	단작노리개(15점)
2	수저집(4점)	휘항(1점)	연장식(3점)	2작노리개(1점)
3	토기등롱(1점)	조바위(1점)	해금(1점)	3작노리개(5점)
4	안경집(12점)	아얌(2점)	나각(1점)	장도(18점)
5	담배쌈지(1점)	도포끈(10점)	운라(1점)	향집노리개(5점)
6	부시쌈지(1점)	금관끈(1점)	운라채(1점)	귀걸이(2점)
7	표주박(22점)	글방도령세조대(1점)	박(1점)	진주선(1점)
8	부채(12점)	배자(1점)		
9	침통(2점)	염낭(1점)		
10	저울(7점)	귀주머니(1점)		
11	패철(1점)	단추고리(1점)		
12	붓걸이(1점)			
13	붓집(1점)			
14	바늘겨레(1점)			
15	방장걸이끈(2점)			
16	발걸이끈(2점)			
17	족자걸이끈(2점)			
총	17종 / 75점	11종 / 22점	7종 / 9점	7종 / 47점



〈그림 13〉 합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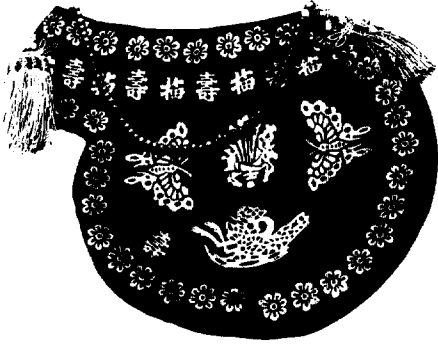


〈그림 14〉 각종 안경집



〈그림 15〉 수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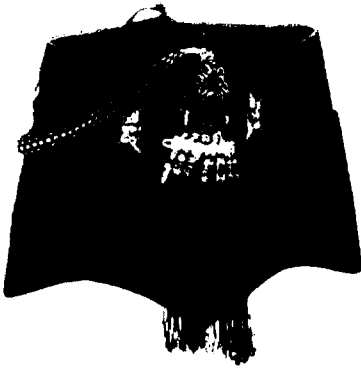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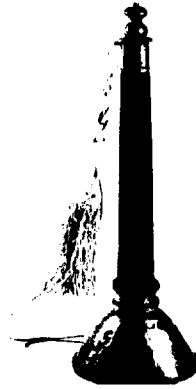
〈그림 16〉 조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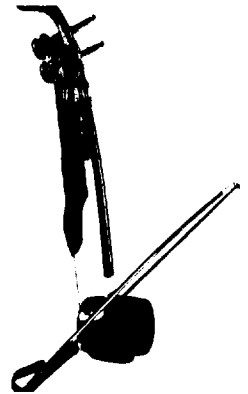
〈그림 17〉 귀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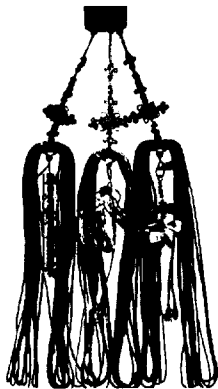
〈그림 18〉 아앙



〈그림 19〉 날라리



〈그림 20〉 해금



〈그림 21〉 삼작노리개



〈그림 22〉 귀걸이

철, 붓걸이, 붓집, 바늘겨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발걸이, 방장걸이, 족자, 붓걸이, 붓집 등에 매듭을 장식하여 실내분위기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꾸몄으며, 여름철 대청마루에 사용한 대나무 발을 걸든 발걸이는 매듭을 맺고 그 끝을 딸기술, 봉술 등으로 장식하였고, 겨울철 의풍을 막아주는 방장이나, 옷을 걸어두는 헛대에도 발걸이와 같은 장식을 하여 사용했다. 이외 부채의 고리에 선추를 끼워 술을 늘어뜨렸는데,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선추. 초혜집 등이 사용되었으며, 끈목의 색깔도 달리하였다.

이들 유물 중 매듭이 사용된 생활용품은 <표 3>과 같으며, 사용된 매듭의 종류는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병아리매듭, 3별감개매듭 등 6종류 이고 떡살, 토기등롱, 담배쌈지, 부시쌈지, 저울, 패철 등은 특별한 기법 없이 그저 끈으로 묶여만 있으며, 끈을 사용한 혼

적만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점의 표주박 등이 남아 있다.

생활용품에 활용된 매듭을 관찰한 결과 가락지매듭이 25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은 도래매듭으로 14번 사용되었다. 즉 가장 기본이 되며 매듭 맺기도 쉬운 매듭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들 매듭은 시작과 끝에 대부분 사용되는 매듭으로서 주로 매듭과 매듭사이에 맺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생활용품에 활용된 매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간단히 맺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의류용품에 활용된 매듭

의류용 매듭으로는 각종 주머니장식 매듭과 난모류 장식매듭, 도포끈, 배자 단추매듭 등을 들 수

<표 3> 생활용품에 활용된 매듭종류와 빈도

생활용품 \ 매듭종류	도래	가락지	생쪽	국화	병아리	3별감개
수저집①				1		
수저집②				1		
수저집③	1					1
수저집④	1		1			1
안경집①		1				
안경집②		1				
안경집③		1				
방장걸이끈①	2				1	
방장걸이끈②	2				1	
발걸이끈①		4				
발걸이끈②		4				
표주박끈 (3점)						
부채①		1				
부채②		1				
부채③		1				
부채④		1				
부채⑤		1				
부채⑥		1				
부채⑦		1				
족자걸이끈①	2	1			1	
족자걸이끈②	2	1			1	
침룡①		2				
침룡②		2				
붓걸이	3					
붓집	1	1				
사용된 총 매듭수	14번	25번	1번	2번	4번	2번

<표 4> 의류용품에 활용된 매듭종류와 빈도

의류용	매듭종류		도래	가라지	생족	연봉	매미	국화	병아리
	앞	뒤							
남바위①	앞				5			1	
	뒤							1	
남바위②			1		1			1	1
휘황								1	1
조바위									1
아얌								1	
도포끈①				1					
도포끈②				1					
도포끈③				1					
도포끈④				1					
도포끈⑤				1					
도포끈⑥				1					
도포끈⑦				1					
도포끈⑧				1					
도포끈⑨				1					
도포끈⑩				1					
금관끈				2					
글방도령 세조대				2					
배자						1			
염낭								1	
귀주머니							1	1	
단추고리						1			
사용된 총 매듭수			1	14	6	2	1	7	3

있다. 요즘 우리 생활에는 귀주머니, 염낭 등과 같은 주머니 없이도 불편한 점이 없지만, 한복에는 부착된 주머니가 없고 따로 만들어 소지하는 주머니를 사용하였으므로 주머니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필수품이었다. 따라서 주머니는 형태, 장식, 용도에 따라 종류가 많았으며, 유물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주머니에 달았던 매듭과 술도 종류가 다양한데, 귀주머니는 대체로 끈술을 장식했으며 약낭은 딸기술을 많이 달았고 두루 주머니에는 봉술을 주로 달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편복으로 애용한 도포에 도포끈(패자띠)을 가슴에 둘러 생동심결로 맺고 끝을 무릎 아래까지 늘어뜨려 멋을 냈으며, 전복의 세조대 끝에도 매듭을 맺어 사용했다. 그리고 속저고리에 연봉매듭으로 단추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온양민속박물관 유물 중 남바위, 조바위, 휘황, 아얌, 도포끈, 금관끈, 세조대, 배자, 염낭, 귀주머니, 단추고리 등의 의류에 매듭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표 4>를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표 4>에서

와 같이 의류에 사용된 매듭 중 가라지매듭이 14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국화매듭이 7번 사용되어 의류에 사용된 매듭도 생활용품에 사용된 매듭과 마찬가지로 가라지 매듭과 같은 기본적인 매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며, 장식성이 강한 국화매듭이나 병아리 매듭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활용품보다는 몸에 걸치는 까닭으로 장식적인 욕구가 표출된 결과라 생각되어진다.

### 3. 의례용품에 활용된 매듭

의례용품으로는 연(蓮), 가마, 상여, 약기 등이 있으며 이중 초파일날 야외법회를 가질 경우 야외 법당에 부처님을 모셔오는 가마를 연이라 하며 이때 연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기 위해 매듭이 많이 쓰였다. 또한 민간에서 새색시가 시집갈 때, 사대부집 부녀자가 나들이할 때 타는 가마와 저승

〈표 5〉 상여와 연에 활용된 매듭종류와 빈도

상여, 연	매듭종류	도래	생쪽	국화	3별국화
상여 (꼭두각시놀이용)					2
연장식①		2	1		
연장식②		2			
연장식③		3		1	
사용된 총 매듭수		7번	1번	1번	2번

〈표 6〉 악기에 활용된 매듭 종류와 빈도

매듭종류	악기종류	해금	나각	운라장식①	운라장식②	운라채	박	사용된 총 매듭수
도래				16	16		16	48번
생쪽		5		11	11		11	38번
가락지				2	2		2	6번
국화		1				1		2번
3별매화				1	1		1	3번
3별국화						1		1번
5별감개				1	1		1	3번
바로나비				1	1		1	3번
거꾸로나비				1	1		1	3번
사색거북관				1	1		1	3번

길에 타고 가는 상여에 대봉유소, 소봉유소 등의 술 장식을 하였고, 시신을 넣는 관은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밑으로 천민에 이르기까지 백포로 매듭을 맺어 묶었다.

은양민속박물관 유물 중 매듭이 사용된 의례용품은 꼭두각시놀이용 상여와 연 장식이 있는데, 사용된 매듭종류는 도래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3별국화매듭 등이다. 이중 도래매듭이 7번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놀이용 상여인 까닭에 많은 종류의 매듭이 사용되지 않은 것 같다.

『세종실록』4권 132 오례(五禮)중 가례도감(嘉禮都監)에 해금과 박의 유소에 국화매듭과 생쪽매듭이 번갈아 맺어져 있으며 딸기술 한 쌍이 달려있다. 또한 대적(大筵)에 석씨매듭, 도래매듭, 생쪽매듭, 딸기술이 달려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해금, 박, 대적 등의 악기에 매듭을 길게 늘이거나 술을 달아 장식한 것은 대개 연회나 큰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하므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장식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은양민속박물관 유물 중 악기로는 해금, 나각, 운라, 운라채, 박 등이 있고, 도래매듭, 생쪽매듭, 가락지매듭, 국화매듭, 3별매화매듭, 3별국화매듭, 5별감개매듭, 바로나비매듭, 거꾸로나비매듭, 사색거북관매듭 등의 매듭이 사용되었다. 이중 도래매듭이 48번, 생쪽매듭이 38번 사용되었는데 생활용품이나 의류용품, 의례용품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생쪽매듭 등과 같은 기본적인 매듭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장식해야 할 주체의 크기에 따라 매듭형태의 크기도 따라가는 특징이 있다. 이는 장식해야 할 주체와 보조역할을 하는 매듭과의 비례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로 보이며, 어떤 용도보다도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매우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매듭이 사용된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 4. 장신구에 활용된 매듭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표 7〉 장신구용품에 활용된 매듭종류와 빈도

장신구	매듭종류	도래	귀도래	생쪽	가라지	팔자	안경집	국화	장구	병아리	3별국화	5별감개	바로나비	석씨	사색거북
옥관나비 노리개		6		1			1		2						
삼작노리개	산호	9		3					1	1					
	나비	9		3					1	1					
	밀화	9		3					1	1					
은투호 삼작노리개	투호①	4						2							
	투호②	4						2							
	투호③	4						2							
철보삼작 노리개	도끼	6		2					2	1					
	방울	14		1			1	1	1	1			1		
	안경	13		3					2	1					
석씨공노리개		8		35			2		1					1	
방아다리노리개		4		1				2							
공작석노리개		2						1		1					
바늘겨레노리개		3			2			1							
죽무늬 향집 노리개		3			2					1			1		
장도노리개		5	1	2					1	1					
산호가지노리개		11		3					2	1					
비취발향노리개		1						1							
	투호	1						1							
	방아다 리	1		1				1							
투호	1						1								
방아다리 노리개		8		2						1					
은행노리개		8		3						1					
글자노리개①								1							
글자노리개②		9		3						1					
찰보삼 작노리개	초혜집	9		3	1					1					
	가지	9		3	1					1					
	도끼	9		3	1					1					
향갑노리개								1			1				
범발톱노리개					1			2							
도끼노리개								1		1					
단작노리개		1						2							
장도노리개					1			1				1			
각향노리개								1				1			
옥향집노리개								1				1			
장도①		2							3	1					
장도②				2											
장도③					4										
장도④					4										
장도⑤					4										
장도⑥					4										
장도⑦					4										
진주선		14			5	2			1			2			1
사용된 총 매듭수		191번	1번	77번	34번	2번	3번	25번	18번	18번	4번	2번	2번	1번	1번

공예품으로 주로 여성에게 많이 쓰이며, 복식용 장식품이 주류를 이룬다. 장신구는 아름답고 세련된 멋을 한층 더 가꾸어주는 용품으로 많은 사랑과 애감을 받아오고 있으며, 운치 있는 몸치장과 함께 발전해온 것이 매듭공예이다.

이러한 장신구중 온양민속박물관 내에 남아있는 유물 중 매듭이 사용된 장신구로는 옥큰나비노리개, 은투호삼작노리개, 칠보삼작노리개, 석씨공노리개, 방아다리노리개, 공작석노리개. 바늘겨레노리개, 죽무늬향집노리개, 장도노리개, 귀걸이, 비취발향노리개, 은행노리개, 글자노리개, 향갑노리개, 범발톱노리개, 도끼노리개, 각향노리개, 옥향집노리개, 장도 등 매듭이 사용된 용품중 장식품의 가지 수가 가장 많았다. 이는 아마도 조선시대 들어와 매듭이 실용성 보다 장식성이 강한 쪽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장신구에 사용된 매듭의 종류는 도래매듭, 귀도래매듭, 생쪽매듭, 가락지매듭, 팔자매듭, 안경집매듭, 국화매듭, 장구매듭, 병아리매듭, 3별국화매듭, 5별감개매듭, 바로나비매듭, 석씨매듭, 사색거북매듭 등을 사용하였다. 장신구의 가지수가 많은 만큼 사용된 매듭의 가지 수도 많았다. 그 중 기본적인 매듭인 도래매듭이 191번 사용되었고, 다음 도래매듭과 마찬가지로 기본매듭에 속하는 생쪽매듭이 77번 사용되었다. 그리고 가락지매듭, 국화매듭, 장구매듭, 병아리매듭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장식용품에 활용된 매듭은 기본적인 매듭외에 응용매듭까지 여러 종류의 매듭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는 앞서 관찰된 용품과 마찬가지로 주체의 크기에 따라 비율을 맞추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매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규정지을 수 없으나 생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점차 생활용품 뿐만이 아닌 실내용품 및 장식품으로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종류의 매듭이 생겨나고 기법 또한 다양해 졌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양민속박물관 유물 중 매듭을 사용한 유물 42종을 대상으로 생활용, 의류용, 의례용, 장식용 등 4가지 용도

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사용된 매듭의 종류와 사용빈도를 분석하여 매듭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매듭의 명칭은 생강, 나비, 잠자리, 국화, 벌, 병아리, 끈디기, 매미, 콩, 연봉 등과 같이 자연에서 얻은 것, 늘 보고 사용하는 온갖 물건과 같이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의 형태에서 얻어진 것이다.

둘째, 매듭은 삼국시대에는 생활전반에 사용되었으며, 고려시대 들어 불교 용품과 같은 장식용품에 사용되었고, 조선시대에는 매듭종류의 발달과 용도가 다양해지고 일반화되었으며, 사치품목의 하나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셋째, 유품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매듭은 주체로서보다는 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체보다 크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넷째, 생활용, 의류용에 사용된 매듭은 8종류이고, 대부분 도래매듭이나 가락지매듭, 생쪽매듭과 같이 쉽게 맺을 수 있는 기본적인 매듭이 대부분이었다.

다섯째, 국화매듭, 병아리매듭, 3별감개매듭과 같은 복잡한 매듭은 방장이나 족자, 남바위, 조바위와 같이 주체의 크기가 크거나 장식성이 강한 주체에 사용되었다.

여섯째, 의례용과 같은 장엄함을 나타내는 주체에 사용된 매듭은 10종류이며, 기본적인 매듭이라도 여러 번 맺고, 국화매듭, 매화매듭, 나비매듭, 사색거북판매듭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완성도 높은 매듭이 사용되었다.

일곱째, 장식용에 사용된 매듭은 14종류이고,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생쪽매듭, 안경집매듭과 같은 기본적인 매듭은 물론 국화매듭, 병아리매듭, 장구매듭, 나비매듭, 석씨매듭 등의 응용매듭 까지 다양한 종류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으로 온양민속박물관 내에 있는 유물에 사용된 매듭의 종류는 현존하는 매듭의 종류는 33종류인데 비해 사용된 매듭종류는 17종류만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자주 사용되는 몇 종류의 매듭만을 배워 사용한 결과 인것 같다. 따라서 매듭 맺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은 그 방법을 잃기 쉬우므로 우리민족의 생활예술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매듭을 계승발전 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매듭, 도래매듭, 가락지매듭, 생쪽매듭,  
국화매듭

## 참 고 문 헌

- 1) 신기철·신용철(1989). 새우리말 큰사전. 주식회사 삼성이데아.
- 2) 주간 디자인 신문(주)(2000). 신 패션용어사전.
- 3) 김영숙(1988). 한국복식사 사전. 민문고.
- 4) 이영순(1974). 매듭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원희(1981). 한국의 전통매듭. 자수. 삼성출판사.
- 6) 김부식 삼국사기. 권 제 33, 잡지, 제 2, 복색, 법흥왕.
- 7) 김부식 삼국사기. 권 제 33, 잡지, 제 2, 거마.
- 8) 서궁 고려도경. 제 9권, 곡개, 청개.
- 9) 서궁 고려도경. 제 10권, 화개, 황번.
- 10) 서궁 고려도경. 제 13권, 패검.
- 11) 서궁 고려도경. 제 15권, 왕마.
- 12) 서궁 고려도경. 제 20권, 귀부조.
- 13) 세종실록. 제 4권, 132, 오례중 가례도감.
- 14) 세종실록. 24년 10월 23일, 갑신조.
- 15) 동국여지비고. 제 2권.
- 16) 대전회통. 권 6 인정전편, 공전.
- 17) 경국대전. 권 6 공전.
- 18)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6). 역주 경국대전. 주석편.
- 19) 김혜자(1997). 매듭장. 국립문화연구소.
- 20) 성락륜(1985). 한국 불화에 나타난 매듭의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재단법인 계몽문화재단(1996). 온양민속박물관도록. 온양민속박물관.
- 22) 재단법인 계몽문화재단(1988). 조선시대의 관모.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 23) 사진과 해설로 보는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 온양민속박물관
- 24) 김은영(1995). 김은영 매듭. 가나아트.
- 25)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2000).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 I. 서울대학교 출판부.
- 26) 최형우. 정량영(1989). 동양의 명화2 한국II. (주) 삼성출판사.